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 1. 31) 중 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사항 안내

대한의사협회
2023. 2. 1.

보건복지부가 2023. 1. 31.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와 관련하여 상대가치 3차 개편에 대한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설명자료에는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 보상 강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종별가산을 개편(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

[현행]		[개편(안)]	
구분	종별가산율	구분	종별가산율
행위 유형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	상급종합 15% 종합 10% 병원 5% 의원 0%
	검체영상검사	모든 종별에 대해 일괄 폐지	

↓

종별가산율 정비* 통해 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에 활용

* 종별가산율 중 일부(15%)는 기본 수가(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의료행위는 종별가산 제도를 유지하여 수가 불균형 해소

출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설명자료, p19, 2023. 1. 31

이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들의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면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현행 15~30%에서 0~15%로 인하하고,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현행 15~30%에서 0%로 인하(폐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수가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구분	현행 [A]				상대가치 3차 개편(안) [B]				변동율 [(B-A)/A]
	상대가치 점수(점)	점수당 단가(원)	종별 가산	건강보험 수가(원)	상대가치 점수(점)	점수당 단가(원)	종별 가산	건강보험 수가(원)	
의원	647.21	92.1	15%	68,550	744.29	92.1	0%	68,550	0.00%
병원			20%	61,900			5%	62,290	0.63%
종합			25%	64,480			10%	65,250	1.19%
상급종합			30%	67,050			15%	68,220	1.74%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 15% 인상

수술, 처치, 기능검사 종별가산 인하 (15~30% → 0~15%)

의원 수가 변동 없음, 상급종합 수가 1.74%인상

그리고 검체검사, 영상검사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수가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기타의경우

구분	현행 [A]				상대가치 3차 개편(안) [B]				변동율 [(B-A)/A]
	상대가치 점수(점)	점수당 단가(원)	종별 가산	건강보험 수가(원)	상대가치 점수(점)	점수당 단가(원)	종별 가산	건강보험 수가(원)	
의원	955.31	92.1	15%	101,180	1,098.61	92.1	0%	101,180	0.00%
병원		79.7	20%	91,370		87,560		-4.17%	
종합			25%	95,180		87,560		-8.01%	
상급종합			30%	98,980		87,560		-11.54%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 15% 인상

검체검사, 영상검사 종별가산 폐지 (15~30% → 0%)

의원 수가 변동 없음, 상급종합 수가 11.54% 인하

즉, 모든 유형의 행위에서 의원급에는 영향이 없으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유형의 수가가 0.63~1.74% 인상되고, 검체검사, 영상검사 유형의 수가는 4.17~11.54%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병원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의료계, 정부, 학계 소속 위원들과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종별가산을 개편(안)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번 필수의료 살리기 의정협의회 논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치 연구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정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